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포털 레포트존

www.reportzone.co.kr



국어

2009년 1학기 중간시험



범위 : 비출석수업 온라인강좌

1. 상고시대의 문학의 대표작품인 공무도하가, 단군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라.

<공무도하가>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는 그가 병을 끼고 물에 들었다는 점으로 보아 무당이 되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무당의 권능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으며, 혹은 술에 취한 주신으로 해석이 된다. 미치광이의 행색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남편을 보면서 서럽게 우는 아내의 모습에서 그 당시 민중의 어려운 삶을 알 수 있다. 공무도하가는 죽음 앞에서 애끓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 고려시대의 '가시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단군신화>

단군신화는 우리나라의 시조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환웅은 천신을 숭배하면서 이주해 온 집단을 나타내며 웅녀는 꿈을 토tem으로 숭배한 토착부족을 나타낸다. 민속학자들은 환웅을 고대의 제사장이면서 부족장이었던 존재로 해석한다. 환웅이 환인에게서 받은 천부인 세 개는 고대 무속 사제가 가진 신성 징표로서 거울, 방울, 칼을 말하며 그가 거느린 풍백, 운사, 우사 등은 기후를 조절하는 주술사로서 농경부족의 족장이 기후조절 권능이 있음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

2. 삼국시대의 문학 작품 중 유리왕이 지었다는 작품 황조가에서 볼 수 있는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황조가는 내용으로 보건대, 외로움을 노래한 서정시로 볼 수 있지만, 당시 임금이었던 유리왕이 서정적인 노래를 한다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유리왕이 처한 정치적인 현실을 서정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황조가의 창작 연대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수렵생활의 사회로부터 농경생활의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3.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망매가의 작품성격과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기술하시오.

제망매가는 세상을 떠난 누이를 그리면서 부른 노래이다. 이 노래에 관한 기록은 “이 노래를 부르자 문득 바람이 일어나 제단의 종이돈을 서쪽으로 날렸다.”고 하여 기능적 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성격은 서정성이다. 서정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현세에서 무심히 떠나버린 누이에 대한 고통, 인간의 유한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나뭇잎에 표현, 마지막 아홉째-열째 줄에서는 그 고뇌의 극한을 감탄사로 고양하고 있는 것이다.

4. 경기체가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인 한림별곡의 해석을 서술하시오.

경기체가라는 명칭은 이 노래에 “景 그 엇더하니잇고” 혹은 “景幾何如”라는 구절이 되풀이되는 된다는 것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경기체가의 내용은 선비들이 학식과 체험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글, 경치, 기상 등을 작품소재로 삼고 있다. 신흥사대부의 호탕한 기상과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한 고려 때 작품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이 있다.

경기체가의 성격이 사대부의 기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경기체가는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기도 하고 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조 초기에는 개국의 기상과 사대부들의 역할이 상당한 것이었으므로 경기체가의 양식이 주된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한자 표기로 된 사물의 나열에 후렴구를 덧붙이는 정도의 융통성 없는 형식성에 한정됨으로써 정서적 기미를 표현하는 데 부적절해서 경기체가는 문학적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

5.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가문학인 시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시조라는 명칭은 ‘時節歌調(시절가조)’에서 나온 것으로, ‘시절가’란 ‘이 시절의 노래’라는 뜻이 들어 있는 말이며, 여기에 곡조를 뜻하는 ‘調’가 붙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옛 가락’ 또는 ‘본디의 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古調’에 상대되는 개념을 지닌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시조는 그 길이가 짧아 ‘短歌(단가)’라고도 하는데, 판소리의 虛頭歌(허두가)도 단가라고 부르는 까닭에 시조의 명칭으로는 별반 사용하지 않는다.

‘가락’ 또는 ‘노래’로 표현되는 시조는 시조가 본디 노래로 향유되었던 사실과 관계가 깊다. 오늘날 우리가 시조라고 부르는 것은 본디 ‘歌曲’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노랫말이었으며,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時調’라는 음악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음악적 관습이다.

이처럼 시조는 노래를 전제로 했고 본디 음악의 명칭이던 것인데, 이것이 근대, 즉 20세기로 넘어 오면서 음악에서 쓰던 명칭을 그대로 문학 장르의 이름으로 사용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조의 종류로는 평시조 또는 사설시조가 있는데, 이러한 명칭도 실상 시조 음악의 종류를 가리키는 ‘평시조, 엇시조, 엮음시조 또는 사설시조’ 등의 구분에서 빌려다 쓴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문학적인 용어로 굳어진 것이다.

6. 우리나라 소설문학의 전통에서 애정윤리문제를 다룬 작품들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소설문학의 전통 속에서 애정윤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야기가 등장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소설이 생성되기 훨씬 전부터 사랑을 주제로 하거나 제재로 사용한 작품이 상당수 창작되었다.

(1) 패설류에서는 『태평통재』 소재의 <최치원>, 『대동운부군옥』 소재의 <수삼석남>, 『삼국유사』 소재의 <도화녀 비행량>, <조신>, <김현감호>, 『삼국사기』 소재의 <온달>, <도미>, <설씨녀>, 그리고 끝으로 『보한집』 소재의 <이인보> 등이 있다.

(2) 애정소설의 구성요소로 ①남녀 주인공의 만남—②친밀감 형성—③열정으로 진전—④성적 결합 여부—⑤사랑의 지속 또는 단절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조 초기에 『금오신화』에 들어있는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취유부벽정기>의 세 작품이 애정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16~18세기에 오면 <운영전>, <영영전>과 <주생전> 그리고 <사씨남정기>가 있으며, 조선조 후기에 가면 <춘향전>, <윤지경전>, <옥단춘전>, <채봉감별곡> 등 수많은 애정소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특히 애정소설의 등장은 조선조의 양반 사대부 중심의 봉건왕조가 억압했던 인간의 자유스런 욕망의 분출에 대해 저항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궁중이나 대군들의 사궁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본능을 억눌러야 했던 궁녀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억압은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에 대한 성억압 상황과 연계되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 「운영전」은 이러한 면을 바라볼 때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던 비밀스런 문제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7. 북한문학 장르 소설에서 사랑에 대한 주제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북한문학에서 애정모티프가 많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이다. 1990년대 북한의 소설가들은 혁명적 낭만주의의 구현에 심취해있으므로 낙관적 전망을 가진 긍정적인 인물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애정모티프가 많이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정모티프의 등장 배경으로 첫째, 사회의 주축이 되는 청년층의 도움이 없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되어 이들의 취향에 맞는 문학의 창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북한 문학에서 자연스럽게 애정모티프가 대담하게 삽입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요인은 청년 노동계급의 열정이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원동력이라고 믿는 김정일의 창작지침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80년대에 다양한 주제의 소설 창작을 주문하였으며, 소설문학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도 애정모티프가 등장하는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8. 1980~2000년대에 북한의 소설 중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기술하고 그 작품에서 보여주는 북한 소설의 애정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북한 소설작품에서 나타나는 소설에서의 애정 표현의 정도를 살펴보면 혁명 제1~2세대와 달리 최근의 전쟁을 겪지 않은 제3~4세대들에게는 남녀간에 가벼운 애정표현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의식변화가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소설문학에서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애정관은 개인주의적인 행복관에 바탕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해와 국가를 위한 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청춘송가』는 1980년대 말에 쓰여진 작품으로 이 작품은 북한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지만 곧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 이유로는 예전의 북한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남녀

간의 대담한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청춘송가』에는 세 쌍의 남녀가 등장하여 사랑을 나누고 있다. 주인공은 진호와 현옥으로 묘사되지만, 태수와 은심, 기철과 정아의 로맨스도 보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서 윤정아가 새연료 안을 창조하기 위해 열정과 집념을 보여주는 진호에게 한때나마 연모의 감정을 느끼게 묘사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사실이다. 『청춘송가』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여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용모보다는 내적인 지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정현철의 「삶의 향기」는 단편소설로 아버지와 아들간의 애정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통해 세대간의 갈등, 남녀의 이성간의 문제, 주부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 등에 대해 그 이전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순종적인 여성보다는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열정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상을 신부감으로 내세우고 있다. 화학실험공 수미를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3) 이태윤의 <사랑> 은 신세대적인 애정관과 여성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도시에서 농업대를 나온 여성인텔리 이현심이 농촌 련포리의 관리위원장으로 부임하여 제대군인출신으로 농촌현대화와 영농기계화에 앞장서는 농촌총각 임옥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북한소설과 달리 여성이 우월한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미묘한 로맨스문제를 처리해나가게 묘사하였다는 점과 도시처녀와 농촌총각의 결합을 실현시켰다는 점이다.

(4) 백남룡의 『동해천리』은 1996년의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도 세 차례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강화학공장 지배인 차웅섭은 상처한 58세의 노인이지만 43세의 노처녀 심혜옥이 P촉매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는데 그러한 일로 인해 공장안에 추문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심혜옥은 창조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 애정의 힘으로 결국은 자신의 목표를 관철하게 되고 차웅섭은 김정일의 도움으로 복직이 된다. 이러한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다.

(5) 홍석중의 『황진이』는 북한문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는 작가의 창작적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소설은 인물들의 성격의 장성과정이 생동하게 묘사되고 있다. 스토리는 농이와 진이의 사랑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 기타 양반 사대부계층들이 모두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인물들로 황진이를 한 인간으로써라기 보다는 단순한 섹스 파트너로서의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비해, 농이의 황진이를 향한 마음은 헌신적이면서도 순수한 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북한 최초로 질편한 성적 묘사나 에로틱한 사랑의 표현이 공개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문단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9. 개화기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보통 갑오경장(1894)에서 한일합방(1910)에 이르는 시기를 개화기, 근대 계몽기, 애국 계몽기 등으

로 부른다. 개화기는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으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자 서구 열강의 침입에 맞서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문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만 했던 중요한 시기이다.

개화기 소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어체 문장에서 언문일치에 가까운 구어체 문장을 사용한다.

둘째, 자주 정신의 각성으로 개화 계몽사상이 주류를 이룬다.

셋째, 신소설과 역사 전기 문학, 개작 번안 소설, 무서명(無署名)소설이 혼재한다.

10. 신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그 특징을 고대 소설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신소설은 개화기에 성행했던 문학 장르의 하나로, 고대 소설과 현대 소설을 잇는 과도기적 소설 양식이다. 작품 구조상으로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고대 소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제 면에서 신소설은 그 전 단계인 고대소설과 크게 다르다.

첫째, 고대소설이 권선징악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신소설의 주제는 계몽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구성에서 고대소설은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지만 신소설은 특정한 시기의 어느 한 단면(주제)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세계관에서도 비현실적인 세계관이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 진다.

넷째, 고대소설은 운문이며 상투적인 한문문체인데 반하여 신소설은 언문일치에 가까운 산문이며 세밀한 현실의 묘사가 드러난다.

다섯째, 사건 구성에서도 우연적 구성과 필연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대표적인 신소설로서는 이인직의 <혈의 누>, <치악산>, <귀의 성>,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해조의 <자유종>, <모란병>, 최찬식의 <추월색> 등이 있다.

11. 신소설은 친일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을 기술하고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신소설에는 문명개화에 대한 강한 열망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친일적인 요소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소설 작가들이 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거기에서 목격한 선진국 일본에 대한 동경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선진 서구 문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맞물려 서구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개화문명에 성공한 일본에 대한 부러움이 작용했던 것이다.

신소설의 주제는 <개화>나 <독립>으로 집약될 수 있다. 신교육을 통한 서구 문화 수용에 대한 강조, 봉건적 인습과 미신에 대한 거부, 신분차별과 남녀차별에 대한 비판, 자유결혼 옹호로 대표되는 억압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저항 등으로 표현되었다. 자주독립의 이념 또한 정치의식의 일면으로 신소설에 투영되었다. 그러나 신소설의 자주독립의 이념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다. 신소설에 등장한 주인공의 행적은 친일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개화에 유익한 존재라는 관념을 암암리에 고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직의 <혈의 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신소설은 표면적으로 각종 개화사상의 주제들을 내걸었지만 그것들은 많은 경우 봉건적인 인간관

계의 윤리를 동반했다. 이를테면 개인에 대한 가족의 우위는 신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남아 있었다. 관념적으로 자유연애를 선전하면서도 결국에는 부모들이 정해준 대로 혼인하는 스토리를 가진 <추월색>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런 사실들은 신소설이 과도기적 양식임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와 그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인직: 최초의 신소설 작가

- ① <혈의 누> (1906년 [만세보] 연재):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부모와 헤어져 방황하던 어린 소녀 옥련이가 일본인 군의관의 양녀가 되어 일본 유학을 하게 되고, 이어서 우연히 만난 구완서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 유학생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를 만나고 구완서와 혼인을 맺는다는 이야기. 반청친일과 신학문의 수용을 골자로 하는 문명개화의 논리 제시
- ② <귀(鬼)의 성(聲)>: 갑오경장 이후 몰락해 가는 양반계급의 부패상을 가족 내의 갈등을 매개로 그려낸 작품
- ③ <은세계(銀世界)>: 부농 최병도가 강원도 감사에게 재산을 약탈당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봉건적인 사회제도와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비판한 작품
- ④ <모란봉(牡丹峰)>: <혈의 누>의 하편
- ⑤ <치악산(雉岳山)>(상권)

(2) 이해조: 신소설이 대중소설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에 직업적 작가로 활동

- ① <자유종(自由鍾)>: 정치적 색채가 짙은 작품으로 여성의 인권, 신교육 자주독립, 미신타파, 계급 타파 나아가서는 문화 및 생활 개선 등 당시의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등장인물(여성)들의 토론을 통해서 부각됨
- ② <빈상설>, <구마검(驅魔劍)>, <원앙도(鴛鴦圖)>, <쌍옥적> 등

(3) 최찬식

- ① <추월색>: 오랜 시일에 걸쳐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받은 최찬식의 대표작. 이 작품은 한국은 물론, 동경, 런던, 만주 등지를 무대로 하여 벌어지는 지식층 남녀간의 애정문제를 소재로 한 것으로, 자유결혼과 신교육의 이념이 주로 표현

12. 신소설은 형식적인 기법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신소설의 형식적 기법>

- (1) 고대소설에 흔히 쓰이던 도입어(화설, 각설, 차설)나 막연한 시공(時空)을 나타내는 부사(하로난, 일일은, 선시에, 차시에, 이적), 장면전환을 나타내는 화두사(각설, 차설) 등이 거의 소멸되었다.
- (2) 지문과 대화를 분명히 구별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서사원리인 <보여주기, 말하기>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 (3) 새로운 어휘가 많이 등장했다.

- (4) 묘사적 기능인 <보여주기> 기능이 많이 보인다.
- (5) 고대소설의 순차적 구성 방법에서 벗어난 역순행적 구성 방법이 많이 보인다.

<신소설의 한계점>

- (1) ‘~이라, ~이더라, ~노라’등의 서술어미를 답습하고 있다.
- (2) 낭독에 적합한 율문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 (3) 사건 전개에 ‘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 (4) 고대소설의 주된 모티브인 권선징악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 (4) 등장인물을 추상적인 전형으로 제시했다.

13. 김규동의 시에 나타난 오브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오브제란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로서 상징, 몽환, 괴기적 효과를 얻기 위해 돌이나 나무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김규동 시인은 초현실주의의 전기시와 리얼리즘의 후기시가 서로 단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동 시인의 시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흔히 김규동의 시세계가 전기와 후기가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평하는 것과 달리, 김규동은 후기에도 초현실주의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초현실주의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김규동의 초기 시와 후기 시를 같이 볼 수 있는 기준은 초현실주의의 오브제와 그것을 지양하는 ‘反오브제’이다. 초현실주의적 이미지들은 대문자의 의미 센스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오브제인 이미지나 또는 그것을 창조한 주체인 작가의 인식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오브제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동기술법과 우연기법, 객관세계의 변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김규동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오브제 역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에 의지하여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면 공간 안에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초현실주의에서의 ‘오브제’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과 주체에 의해 재구성된 내면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시는 초기와 후기를 잇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데, ‘오브제’에 대한 고민, 즉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무엇을 써야하는가 하는 고민이 두드러진 시가 대표적이다.

후기 시에는 초기에 추구하던 ‘오브제’에 반대하여 시 쓰는 대상을 외부 현실에서 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4. 가사의 성격을 정의한 이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가사의 장르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도남(陶南) 조윤제(趙潤濟)

가사는 ‘운율적 생활의 일부’라는 ‘시가(詩歌)’개념으로 보았으나 그 후 ‘시가, 가사, 소설, 희곡’이라는 4대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서구의 고전 문학의 3분체계인 서정, 서사, 희곡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국문학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연구 초기에 조운제가 국문학의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2분법, 3분법, 4분법으로 수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가사’장르 때문이었다.

(2) 조동일(趙東一)

이론으로 체계화된 획기적인 장르 이론을 세운다. 그는 ‘장르론의 원리는 장르 상호간의 관계론에 그치지 않고 각 장르 내부의 논리로 심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분류론과 범주론 차원에 머물고 있던 장르적 인식을 극복하는 포괄된 장르 이론을 정립한다. 그리하여 ‘가사’는 서구의 전통적 장르 구분법인 3분법으로 정리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규정했다.

(3) 장덕순(張德順)

가사문학 논의에서 내적 형식으로서 문학의 본질을 가리킨 ‘양식’ 개념을 도입 이는 형태라는 용어와 대비하여 ‘양식’이란 용어를 ‘인간 정신이 문화적 생활을 형성해 가는 방식’이란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양식개념에 따라 문학을 ‘서정적 양식, 서사적 양식, 극적 양식’으로 구분하고, ‘가사’는 주관적이고 서정적인 가사와 객관적이고 서사적인 가사로 구별된다고 설명한다.

(4) 주종연(朱鍾演)

가사를 유개념으로 서정적인 것과 서사적인 것으로 2분하고, 종개념에서 수필로 규정했다가 뒤에 이를 다시 ‘서정적인 것, 서사적인 것, 교시적인 것’으로 3분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장르로서의 가사는 전·후기 가사의 동태적 변화에 주목하여 전기 가사는 서정·서사·교술성의 장르적 성격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심적 정신으로 삼고, 다른 둘을 보조 장치로 포용하는 장르의 지향을 보인다. 이러한 장르의 복합성은 임·병 양란 이후 사회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해지면서 각 지향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서정성·서사성·교술성이 각각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논의를 펼쳤으나 후에는 가사를 포괄 할 수 있는 원리를 ‘주제적 양식’이라는 진술 방식에 있다고 보면서, ‘서정적·서사적·극적 양식’들은 그 주제의 양식이 실현되는 양태들로 파악하기도 했다.

(5) 김흥규(金興圭)

‘가사작품들의 다양한 성향에 주목하여 그것을 여러 종류의 경험, 사고 및 표현 욕구에 대하여 폭넓게 열려 있는 혼합 갈래의 일종으로 파악했다. 이것은 가사가 ‘서정, 서사, 교술, 희곡’의 여러 성격이 복합·혼화되어 있다는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양식론의 사고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제5의 장르류인 ‘중간·혼합 갈래들’의 장르 설정의 기준이 다른 네 가지 장르류와 동질성을 갖지 못한 까닭에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

(6) 성무경(成武慶)

기존 장르론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장르론의 구도를 제시, 가사의 존재양식은 ‘노래하기라는 환기 방식이 서술의 입체화를 방해하여 서술의 평면적 확장’을 이루는 ‘전술(傳述)양식’이라고 하고, 그 ‘전술양식’은 서술 언어의 통사적 의미를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특성을 보이며, 또 ‘나’라는 ‘인격적 서술 주체의 목소리’로 진술되는 까닭에 서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학양식이라고 했다.

15.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와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언어의 이원성(분리성)

인간의 언어는 '소리'(음성)와 '의미'(개념)로 구성되어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음성기호를 통해 실현하는 방식인 것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 곧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이원성(二元性)이라고 칭하는데, 언어가 '소리'와 '의미'로 나누어진다고 해서 분리성(分離性)이라고도 한다.

(2) 언어의 자의성(임의성)

인간 언어의 '소리'와 '의미'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어떤 개념이 어떤 언어형식(음성)과 관련을 맺는가 하는 것은 해당 언어공동체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namu] 등의 언어형식은 임의의 음성기호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3)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특성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사회성(社會性)이다. 특정 언어집단에 있어서 언어기호의 내용과 형식은 그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4)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쓰이던 말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속성을 역사성(歷史性)이라 한다.

(5) 언어의 분절성

동물의 언어가 한 소리의 외침인데 반하여, 인간의 언어는 반드시 일정한 수의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 문장은 구(句)로 나누어지고, 구(句)는 단어로, 단어는 음절로, 음절은 낱소리로, 이와 같이 각각 쪼개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분절성(分節性)이라고 한다.

(6) 언어의 경제성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어떤 인간의 언어이든지, 기본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하는 자음의 수와 모음의 수는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은 이 한정된 개수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의미의 단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언어에는 조합을 통한 언어의 창조인 '경제성'이 잠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7) 언어의 창조성(생산성)

인간의 언어가 한정된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

다는 뜻이다. 동물의 언어는 가지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새 상황에 맞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규정된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컴퓨터, 인터넷, 지상강좌, 출석수업' 등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9) 언어의 체계성

언어는 창조성이 있지만 새로운 문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 언어에는 일정한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언어의 체계성(體系性)이라 한다. 어떤 언어이든지 언어기호들이 모여서 일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는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16. 언어의 비연속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인간의 언어기호는 충분히 체계적이지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개념)은 있는데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언어기호)을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외부세계는 연속적이지만, 언어는 비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색깔은 무수한 색깔의 연속일 뿐이지 그 경계선은 없다. 어떤 언어에서는 7가지 색깔로 인식하고, 또 어떤 언어에서는 3가지 색깔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무지개가 정확히 표현되는 색깔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은 연속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그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표현하지 못한다. 비연속적으로만 표현할 뿐이지요. 이를 언어의 이산성(離散性)이라고 하는데 '비연속성'이라는 같은 뜻이다.

17. 표준어 제정의 필요성을 표준어의 기능과 관련하여 관하여 논하시오.

언어는 한 사회가 살아가면서 역사와 더불어 유사한 다양한 변종이 생긴다. 언어의 표준화란 어떤 언어 규준을, 다시 말하면 표준어를 정하여 여러 변종 사용자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 일을 말한다. 발음, 어휘, 문법 등에 걸쳐 그것을 벗어나면 틀린다고 하는 규준을 만들어 한 나라의 언어를 통일하려는 언어정책인 것이다. 언어의 변종이 일어난 한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통일된 의사소통의 매개체를 가지려 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언어의 표준화를 통해 국민들이 동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편익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의 표준화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르면 서울말이 표준어로 되어 있다. 서울말은 여러 지역 방언 중에서 서울 방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 온갖 분야의 중심지인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서울말을 표준말로 삼는다는 것은 달리 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중심이 뚜렷하게 하나가 아닐 때, 가령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라면 어느 한 지역의 방언으로 표준어를 삼을지가 단순치 않을 수 있지만, 뚜렷한 중심이 하나 있을 때 이 문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의 가장 큰 기능이 통일의 기능이므로, 그리고 우월의 기능도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므로

로 매우 당연하다. 문화, 행정의 중심지의 방언이 가장 쉽게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으므로 통일된 표준어를 가지려고 할 때 그 기능의 수행에 가장 알맞은 방언이 그 방언일 것이며, 또 그 중심지의 방언이 어느 방언보다 국민들한테 가장 호감을 주는 방언일 것이므로 어느 다른 방언을 표준어로 삼았을 때보다도 여러 면으로 충족감을 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방언 중 서울의 방언을 표준어로 삼은 일에 대해서는 달리 길게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8. 지역방언과 표준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라.

현재의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르면 서울말이 표준어로 되어 있다. 서울말은 여러 지역 방언 중에서 서울 방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 온갖 분야의 중심지인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서울말을 표준말로 삼는다는 것은 달리 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중심이 뚜렷하게 하나가 아닐 때, 가령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라면 어느 한 지역의 방언으로 표준어를 삼을지가 단순치 않을 수 있지만, 뚜렷한 중심이 하나 있을 때 이 문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의 가장 큰 기능이 통일의 기능이므로, 그리고 우월의 기능도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므로 매우 당연하다. 문화, 행정의 중심지의 방언이 가장 쉽게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으므로 통일된 표준어를 가지려고 할 때 그 기능의 수행에 가장 알맞은 방언이 그 방언일 것이며, 또 그 중심지의 방언이 어느 방언보다 국민들한테 가장 호감을 주는 방언일 것이므로 어느 다른 방언을 표준어로 삼았을 때보다도 여러 면으로 충족감을 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방언 중 서울의 방언을 표준어로 삼은 일에 대해서는 달리 길게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9. 표준어에 비추어 본 비속어와 은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가리, 모가지, 주둥이, 소갈머리, 똘지다, 시부렁거린다’ 등 처럼 점잖은 말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흔히 비어, 속어, 또는 비속어라 한다. 이러한 비속어들도 표준어에 속한다. 이 단어들이 점잖은 말로는 쓰이지 않지만 중류나 상류의 식자층 사람들도 일상 쓰는 정상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표준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반드시 표준어라 해서 점잖고 고상한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은어는 표준어가 될 수 없다. 표준어는 두루 통용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은어는 그야말로 ‘교양인이 두루 쓰는’말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집단에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은어들은 대체로 생명력이 짧아 쉬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들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아주 좁은 범위의 통용력만을 가진다.